



‘편안한 스타일의 스위트 레드 와인’

블루넨 돈펠더

Blue Nun Donfelder

지역	독일) 팔츠		
포도품종	돈펠더 100%		
알코올	8.5%	용량	750 / 375ml
시음 적정 온도	13~15°C		
테이스팅 노트	블랙베리와 블랙커런트의 기분좋은 풍미로 부드럽고 달콤하여 와인 초보자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스위트 와인이다.		



제품설명



블루넨 돈펠더는 독일의 고유한 레드와인 품종이나 블루넨의 새로운 와인 메이킹 스타일로 좀 더 친근한 와인으로 탄생하였다. 검붉은빛이 감도는 와인은 블랙베리와 블랙커런트의 기분좋은 풍미를 잘 간직하고 있으며 달콤하면서 풀바디함을 동시에 지니며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이다.

와이너리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인 블루넨은 지셀 존에 의해 1921년 설립되었다. 1995년 랑구스 사와 합병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블루넨은 더욱 모던하고 상큼한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와인이 되었다. 블루넨은 문자 그대로 '푸른 옷을 입은 수녀'라는 뜻으로, 오래 전부터 와인은 성스러운 장소인 수도원이나 성당에서만 만들 수 있었으며,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수녀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품질의 포도원액과 어울리는 푸른색의 미려한 병모양은 다양한 계층의 와인 애호가들의 욕구를 언제나 충족시켜 왔다. 블루넨의 오랜 역사와 모던한 기풍은 크발리테츠바인에서부터 아이스바인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